마라난타 고향, 파키스탄 불교를 만나다

다큐멘터리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

주한파키스탄대사관 6월 28일 시사회
간다라지역 등 대표 유적지 유물 소개
파키스탄 불교 전래·전파 과정 그려
라호르 박물관 부처님 고행상 '압권'



사진 위부터, 라호르박물관 소장 부처님 열반상, 신드 주에 있는 툴미르 루칸, 페샤와르박물관이 소장한 부처님 생애 기록한 조각 중 일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6월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시사회를 통해 다큐멘터리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Buddhist Heritage of Pakistan)'을 공개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2021년 8월부터 파키스탄 불교유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파키스탄 현지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사와 공동으로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러닝 타임 41분)'을 제작했다. 이번 다큐멘터리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은 파키스탄과 한국의 불교문화교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이 한국 불자들에게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을 알림으로써 양국의 교류 증진을 위해 제작됐다.

파키스탄은 간다라미술, 불교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로 많은 불교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있다. 메르가르문명, 인더스문명, 간다라문명, 실크로드 등 변화와 번영을 거듭해온 파키스탄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성'의 나라 파키스탄에서 불교가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들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 소개한다.

다큐멘터리는 간다라 지역에서 시작되는 파키스탄의 불교를 중심으로 파키스탄에서 불교가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부처님의 일대기와 함께 소개한다.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는 최고의 부흥기를 맞게 된다.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은 오랜 역사관계에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4세기 마라난타 승려의 여행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마라난타 승려는 오늘날의 파키스탄에서 출발해 한국 법성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불교를 소개했습니다."

간다라 출신의 마라난타는 법성포를 거쳐 백제에 들어와 불갑사를 세우고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불교와 파키스탄불교의 오랜 인연을 소개하면서 간다라 문명 속에서 불교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조명한다. 특히 간다라 문명이 나은 간다라미술을 깊이 있게 소개한다. 간다라 지역의 불교 유산과 독특한 예술은 여전히 아시아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

간다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혜초 스님의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한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는 간다라의 주요 지역인 카슈미르, 길기트, 스와트, 치트랄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원본은 현재 파리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아쇼카왕이 불교 포교 메시지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카로스티어로 새긴 거대한 암석, 밍고라 지역의 붓카리 불탑, 간다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도상 중 하나인 좌불상, 스와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수십 기의 불탑 등 다큐멘터리는 파키스탄 곳곳에 남아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탁실라의 대승탑으로도 알려진 다르마라지카 불탑은 부처님의 작은 뼛조각을 보관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곳은 탁실라 최초의 불교 수도원이자 기도하는 장소로 아쇼카왕이 설립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부처님의 치아는 현재 탁실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백미는 간다라 문명과 불교 문화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편잡주의 라호르박물관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고행상을 만나볼 수 있다. 사라와스티와 시크리 불탑과 더불어 부처님 고행상은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전시품 중의 하나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깊게 패인 두 눈, 가죽만 남은 얼굴, 그 위로 드러난 핏줄과 힘줄, 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가부좌 자세, 선정을 보여주는 듯한 두 손. 간다라미술을 대표하는 걸작 중의 하나인 부처님 고행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루 쌀 한 톨만으로 극단의 고행을 했던 석가모니부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세밀함의 그리스 조각 기법으로 탄생한 불상의 모습은 절로 감탄과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3만 점의 간다라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페샤와르박물관 본관에는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74개의 스토리보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곳은 페샤와르박물관이 유일하다고 한다. 좌불상, 입상 등 거대한 크기의 다양한 모습을 한 부처님 조각상을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Buddhist Heritage of Pakistan)'은 주한파키스탄 대사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uiShB7lj0e8)에서 볼 수 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선서화전

'월인-묵언(月印-墨言)' 展
7월 3일~8월 6일 범어사성보博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범어사성보박물관에서 선서화전 '월인-묵언(月印-墨言)'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1년 가을에 열었던 '월인산방' 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10여년의 세월 속에서 더욱 깊어진 경선 스님의 선서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경선 스님의 선서화는 묵향과 법향이 어우러져 월인삼매에 이른다. 수행자의 본분인 예불과



경선 스님 作, 한산습득가가소.

수행을 철저히 지키는 과정에서 마주한 깨달음을 전통문인화적 필치와 선(禪)적 시구(時句)로 화면을 채우고 있다.

벽암록의 〈조주석교〉, 〈강산고절처〉, 〈불식〉, 〈불회〉, 〈산심수심선심〉에서는 문기(文氣) 넘치는 산수정취에 득향(得香)의 묵언을 부여했다. 그리고 분주했던 어부가 한시름 숨을 돌리고 유유자적 물결과 바람을 가로지르는 〈망중한동중정〉, 〈어부한사〉, 〈겁외어부〉, 〈춘유백화추유월 하유량풍동유설〉 작품들은 범어사 정진도량에서 주지 소임을 맡으며 쉼 없이 예불 울력 공양을 철저히 지켜왔던 스님의 원력시간 가운데 관조적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더욱이 안양암에서 바라본 〈안양암 일출〉, 구름속에서 나투는 〈웅비〉, 화면중심에서 빛을 발광하는 여의주를 품고자 하는 〈봉황 여의주〉, 녹음푸른 산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린 그림 속에 '한산습득가가소'란 화제시를 적은 〈한산습득가가소〉 작품들은 아마도 금정총림 범어사의 법력과 비상, 이를 위한 주지 경선 스님의 깊은 염원과 지극한 마음이 투영되는 듯하다.

경선 스님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장을 역임했고, 특히 많은 대중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범어사 선문화교육관·템플스테이관·성보박물관을 신축 및 개관하여 하나의 문화도량을 조성하는 원력을 이뤄냈다. 이번 전시는 작년 11월 신축 이전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초청하는 특별기획전이다. 문의 (051)508-6139.

박재완 기자

제7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작품 공모

작품 접수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천태종(총무원장 무원)이 제7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전통불화 △현대불화 △공예(조각) △민화 등 총4개 분야이며, 작품접수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관문사(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로 접수하면 된다.

전통불화와 현대불화의 규격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 이하여야 하며,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가능하다. 공예(조각)는 높이 200㎝ 미만, 가로×세로 합이 400㎝ 이하, 무게 500㎏ 미만이어야 한다. 민화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이 400㎝ 이하이며, 액자로 제작해 접수해야 한다.

공모요강과 출품원서는 6월부터 금강신문 홈페이지(www.ggb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에게는 상금 2000만 원과 상장·상패를 수여하며, 대상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최우수상인 문화재청장상 1명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상장·상패, △우수상 4명에게는 상금 각 200만 원과 상장·상패, △장려상 4명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과 상장·상패, △특선(약간 명)에게는 상장 및 상품, △입선(약간 명)에게는 상장, △특별상에는 상장 및 기념패가 주어진다. 심사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10월 26~3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전시한다. 문의 (02)547-4746(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박재완 기자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